

먹거리로 삶을 연결하는 시장, 마르쉐 Market that Connects Life with Food, Marche@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Marche@

마르쉐친구들 대표
President, Marche@

마르쉐와 친구들

1. 미션: 먹거리를 통해 삶을 연결합니다.
 - 1.1 먹거리로 대화합니다.
 - 1.2 삶을 연결합니다.
2. 비전: 생산자를 생각하는 소비,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이 만나는
장을 펼칩니다.
 - 2.1. 생산자를 생각하는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 2.2.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활동
 - 3.1. 마르쉐@
 - 3.1.1. 정규 시장: '마르쉐 농부시장'과 '마르쉐 채소시장'
 - 3.1.2. 이벤트 시장
 - 3.2. 시민참여
 - 3.2.1. 쓰레기 없는 시장
 - 3.2.2. 쓰레기 없는 시장
 - 3.2.3. 운영조직
 - 3.3. 시민교육
 - 3.3.1. 지구 농부 프로젝트
 - 3.3.2. 농가행
 - 3.3.3 포럼
 - 3.4. 공간 프로젝트
 - 3.5. 출판
 - 3.6. 용역

참고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3년 12월 30일
심사일 2024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5일

Received Date 30 December 2023

Reviewed Date 15 January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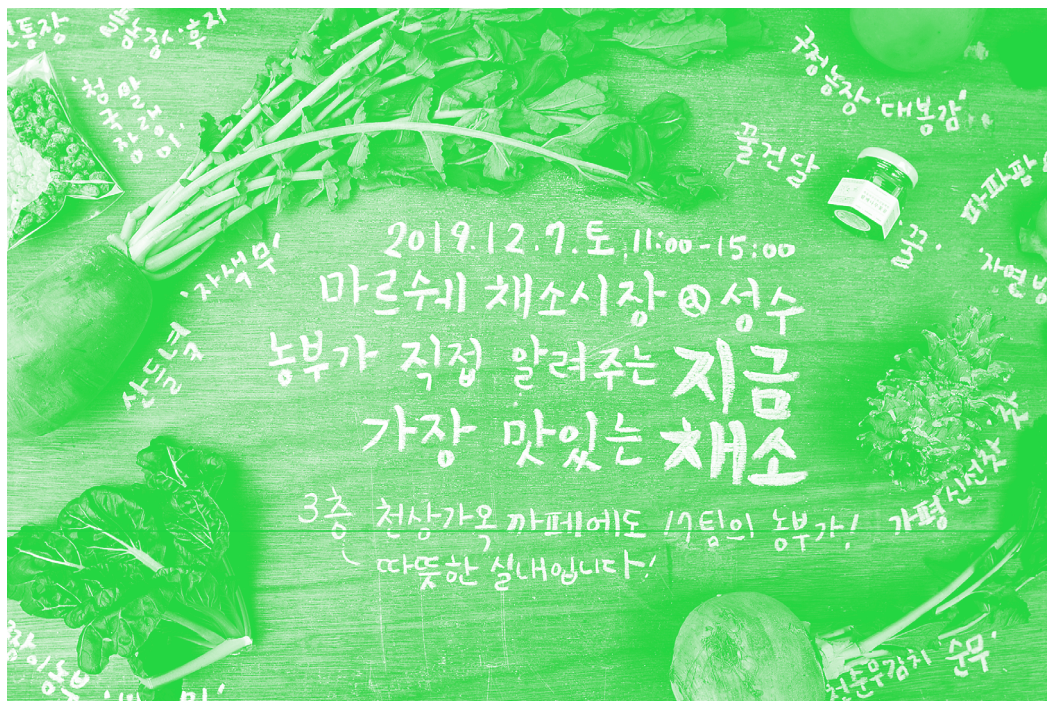
Accepted Date 15 February 2024

소개

마르쉐, 어디에서든 열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마르쉐는 공동체 관계의 장이었던 본래 시장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삶의 토대를 이루는 ‘먹거리’를 통해 관계 맺고 대화하면서 단절되어 있던 삶을 ‘다시’ 연결합니다. 우리의 다른 삶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는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의 운영 조직입니다. 2012년에 시장 기획자들과 여성환경연대, 마리아클레르가 협력하여 처음 시장을 개최한 이래 2017년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23년 현재 6명의 시장운영자들이 ‘마르쉐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Marche@ is a market that can be opened anywhere. Inspired by the original markets that served as a space for community relationships, we “reconnect” disconnected lives by forming relationships and sparking conversations through ‘food,’ which forms the basis of our very lives. This is where our other lives begin. “Farmer’s Market Marche@” is the organization operating “Marche@,” a talking farmer’s market co-created by farmers, chefs, and artisans. The first market opened in 2012 through a collaborative effort made by market planners, the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and Marie Claire,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in 2017. As of 2023, the market is run by six staff members called “Marche@ Friends.”



〈그림 1〉 마르쉐 채소시장(성수): 농부가 알려주는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마르쉐와 친구들

농부시장 ‘마르쉐@’의 ‘마르쉐@’는 ‘장터, 시장’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마르쉐(marche)에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 at(@)을 더한 이름으로, 어디에서든 열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2012년 10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첫 장을 연 마르쉐@는 ‘돈과 물건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시장’ 대신 ‘사람, 관계, 대화가 있는 시장’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마르쉐@’라는 이름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조금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르쉐@’는 상품화된 서비스를 무한히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먹거리를 통한 가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를 지향합니다.

현장의 친밀한 대화와 모임에 기반을 두고 시장의 의미와 가치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공유되어 온 장터, ‘마르쉐@’가 펼쳐지는 곳에서는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집니다. ‘마르쉐@’의 미션과 비전, 모든 활동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순환되는 관계 맺기로 수렴됩니다.

1. 미션: 먹거리를 통해 삶을 연결합니다.

1.1 먹거리로 대화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을 함께 배려하는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먹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와 구조에 관심을 갖고 대화합니다.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안합니다.



〈그림 2〉 농부가 직접 재배한 채소들

1.2 삶을 연결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서로의 삶이 변합니다. 개인의 일상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생활로 나아갑니다.

2. 비전: 생산자를 생각하는 소비,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이 만나는 장을 펼칩니다.

2.1. 생산자를 생각하는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 과정에서 생산자와 생산 환경,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을 생각하며 다른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2.2.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와 자연 그리고 그와 연결된 나의 삶을 생각하며 다른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 3〉 마르쉐와 파타고니아가 함께 한 지구농부 프로젝트

3. 활동

3.1. 마르쉐@

도시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며 이루어지는 소비를 통해, 서로 배우고 관계 맺으며 더 나은 먹거리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기적인 시장을 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장은 마르쉐의 주요 콘텐츠인 농과 먹거리, 생산자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공간이다. 동시에 생산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공간으로 농사, 계절,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밸런스를 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마르쉐 시장 모습

3.1.1. 정규 시장: ‘마르쉐 농부시장’과 ‘마르쉐 채소시장’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정규적으로 열리는 시장입니다.

(1) 마르쉐 농부시장은 100여 팀의 농부, 요리사, 수공예팀이 참여하는 마르쉐@의 대표 시장입니다. ‘씨앗’, ‘풀’, ‘지구’, ‘햇밀’, ‘토종’ 등의 다양한 주제에 맞는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농사와 먹거리의 풍성한 이야기가 담기는 축제의 성격을 띠니다. 햇밀장은 2021년부터 온라인에서 아카이브도 진행됩니다.

(2) 마르쉐 채소시장은 “대화하는 농부시장”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 소규모(20여 팀)의 농부, 요리사가 참여하며, 손님과 생산자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시장입니다. 농부들이 추천한 지금 시기에 가장 맛있는 채소인 ‘지금 채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지금 채소’를 활용한 채소 점심을 운영합니다. 채소시장 마르쉐@는 서교, 성수, 국립극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3.1.2. 이벤트 시장

협력기관 또는 후원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MMCA(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협력), F1963(현대모터스튜디오, 공예디자인페스티벌), 아시아문화전당, 세운상가(서울도시재생성과공유회), 어린이대공원(도시농업박람회, 2016), 시청광장(도시농업박람회2015)에서 ‘마르쉐@’ 시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림 5〉 마르쉐 시장 모습

3.2. 시민참여

3.2.1. 쓰레기 없는 시장

대화를 불편하게 하는 일회용기, 일회용홍보물 사용을 지양하며 출발 때부터 ‘빌려쓰는 그릇’, ‘버려지는 물건’은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져서 ‘다시쓰는 종이봉투’ 각종 포장용기 수거하고 생산자들이 재이용하는 순환이 시장안에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4월 지구의말 무렵부터 6월 환경의 날까지 Earth Day Every Day 캠페인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윤호섭선생님의 그린 페인팅, 지렁이분양 등이 진행됩니다. 2023년부터는 마르쉐에서 장본 손님들이 음식물퇴비를 모아 농부들에게 되돌리는 일을 <퇴비클럽>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3.2.2. 쓰레기 없는 시장

자원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시장 마르쉐의 쓰레기 없는 시장 만들기는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에 참여하여 생산자들을 돕고 그릇을 빌려주고 씻고, 손님들이 모아오는 다양한 포장재를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장의 특성에 따라 10-30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시장에 함께 합니다.

3.2.3. 운영조직

시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시장운영위원회 (농부, 요리, 수공예팀의 운영위원들), 매년 여름과 겨울의 계절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6〉 마르쉐 시장 모습

3.3. 시민교육

농부들의 삶의 터전이나 도시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배우며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먹거리의 시작을 배우고, 먹거리 소비가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순환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배웁니다.

3.3.1. 지구 농부 프로젝트

마르쉐는 파타고니아와 함께 토양을 회복하고 지구를 살리는 재생 유기농업 등을 응원하며 2021년부터 지구농부시장, 지구농부포럼, 필드트립, 생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8〉 마르쉐 지구농부 포럼 장면

3.3.2. 농가행

시장에서 시작된 대화를 논과 들, 농부의 밥상으로 이어갑니다. 농부 삶의 터전으로 가서 농(農)을 만나는 여행입니다. 농가행은 2014년부터 마르쉐@출점자들의 생산지 상호방문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다른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3.3.3 포럼

농부시장과 먹거리의 순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나누는 포럼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2017년 2월, 국제포럼 〈농촌과 도시,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서〉, 2018년-2019년에는 〈사람, 동네, 시장〉을, 2020년 농부시장포럼에서는 〈기후위기시대, 농사〉를 이슈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2023년에는 지구농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 지속가능한 음식을 향한 동아시아포럼을 내일의식탁과 공동주관 했으며 농부시장포럼을 국내 여러 농부시장들과 연대 하여 재개했다.

3.4. 공간 프로젝트

서울시의 공원 등의 공유지를 시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실험으로, 연남동 동진시장내 ‘마르쉐키친’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공원공사장 내에 비밀기지라는 시민공유지 만들기 실험에 참여하여 텃밭과공유부역을 운영했으며, 마르쉐@비밀기지 등의 작업을 이웃한 크리에이터들과 진행했습니다. COVID19 기간 중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농가들의 생산물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과일야침’, ‘마르쉐라운지’,

‘채소아침’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회현동에 창고와 사무실을 위치하고 다양한 공간들과 협업관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5. 출판

2016년 농(農)과 연결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잡지 0호를 발행했고, 2018년에는 <농부시장 아카이브: 사람, 시장, 동네>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말이 씨앗이 되다>를 발간했습니다. 2019년에는 <농부시장 마르쉐 환경가이드>를, 2019년부터는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채소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6. 용역

2018년 문화비축기지 ‘모두의시장’을 브랜딩하여 기획 및 운영했으며, 2019년에는 ‘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 전국대회: 여행하는 시장’을 기획했습니다. 2017년부터-2020년까지 ‘관광두레 로컬 식문화: 부엌유람, 미행’을 기획했습니다. 2021년부터-2023년 서울미식주간마켓을 운영했으며 2023년에는 의성주식주간행사 포럼 및 마켓, 공예디자인페스티벌마켓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참고

이보은 외,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2017 지속가능성 보고서; 말이 씨앗이 되다.

-